



남양주시 평내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사례

글 | 손민성

남양주시 외부도서관 사서
sonms78@korea.kr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현재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의해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저 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겠지만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학습 의욕 또한 낮은 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등과 교류하고 정보를 얻지 못해 소외되기 쉽고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와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 산업현장과 가정의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할 수록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언어까지 구사하는 자녀들은 장차 우리사회의 큰 사회적 자원이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수용하여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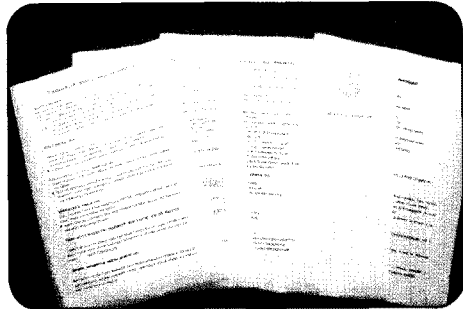
회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평내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사례

현재 남양주시에는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예술, 과학 등 각각의 테마를 가진 특성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 개관한 평내도서관은 다문화도서관으로서 다국어 도서관 이용 안내문 비치 등의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안내문 다국어 제작 비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 장애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일 것이다. 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언어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 원활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다국어로 된 이용안내문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어와 몽골어 2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번역 언어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다국어 이용 안내문

다문화 도서 비치

평내도서관은 개관 이래 꾸준히 다국어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전체 장서의 약 10.9%가 다국어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국어 도서 비치일 것인데 다국어 도서는 수서담당자가 해당 언어를 모르는 경우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수서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해당국가의 전래동화나 유명서의 번역본 등을 위주로 수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국어 도서는 그 수요가 많지 않아 입수하기가 어렵고 국내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다국어 도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는 다문화 도서관에서 항상 고민해야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문화 영상정보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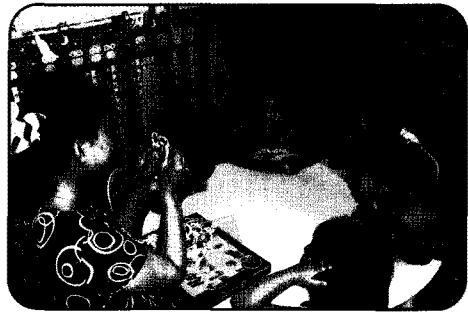
평내도서관의 다문화 영상정보실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6개 국가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대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다문화 영상정보실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인들의 국가별 모임 등에 필요한 공간 제공 및 추후 기존 TV수상기를 모니터로 활용하여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공간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다문화 영상정보실

한국어교실 및 유아가베교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한국어 강좌일 것이다. 도서관 외에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진행되는 강좌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강좌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인들이 한국어 강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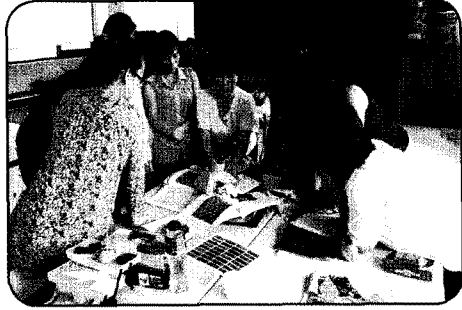
▲ 유아가베교실

수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장소의 접근성과 보육문제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한국어 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생 자녀 보육을 위한 유아가베교실을 함께 진행하여 교육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주여성 취업을 위한 쿼트교실

한국 사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주민여성의 경우 언어적 소통문제, 관련 직업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

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주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쿼트교실을 기획하였다. 쿼트교실 수료자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한 상점에 쿼트공예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쿼트교실

다문화 동화구연

평내도서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문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 등 매월 국가를 변경하여 해당국 출신 이주민이 동화구연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동화구연은 한국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의 동화를 경험하게 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어머니나라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제고 및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다문화 동화구연

예정 프로그램

이 외에 한국 아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음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한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사 양성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했던 해당국 출신 이주민이 진행하고 있는 동화구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동화구연사 양성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의 특성을 살려 출신국가의 동화를 구연 가능하도록 하여 다문화 동화구연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글을 맺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투입되는 재정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국에는 100만이 넘는 다문화 인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는 세계화의 산물이므로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의 3박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주민도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며 국가 이익의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들의 관심으로서의 자발적인 시민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더불어 다문화를 수용하는 국민적 의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